

문화정보학과 학생들의 문화성향과 협력학습의 관련성 연구*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of LIS Students and their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Self- and Peer-Evaluation

박 성 재 (Sung-Jae Park)**

김 양 우 (Yang-Woo Kim)***

초 록

본 연구는 문화정보학과 학생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하고 성향별로 협력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문화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Triandis(1988)의 척도를 사용하여 4가지 수준(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으로 평가하였다. 각 수준별 협력행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성향으로 66.7% 학생들이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보였으며 이들은 협력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협력학습의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인 반면 만족도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협력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atively investigated the cultural disposition of undergraduates in LIS and their collaborative learning. To identify the cultural disposition, this study employed the Triandis' scale identifying four dimensions including horizontal individualism, vertical individualism, horizontal collectivism, vertical collectivism. Additionally, their collaborative learning was analyzed by self- and peer-evaluation surveys. The findings showed that 66.7% LIS students had the horizontal collectivism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collaboration was higher than other groups. Additionally, the gender difference indicated that female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llaboration and gave more contributions than male students. However, the female students had low satisfaction to the collaborat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improve LIS students' collaborative learning.

키워드: 문화성향, 협력학습, 자기평가, 동료평가, 대학생, 설문지

Cultural Disposition, Collaborative Learning, Self-evaluation, Peer-evaluation,
Undergraduates, Survey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지원금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spark@hansung.ac.kr) (교신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ykim@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14년 12월 7일 논문심사일자 : 2014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14년 12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333-349, 201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4.333]

1. 서론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2012)는 조별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생들의 49%는 조별과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80%의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업진행 방식이나 점수의 공정성 문제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불성실한 조원에 대한 문제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연구(박성재 2013b)에서도 대학생이 협력학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학생들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을 통한 학습이 제안되고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무임승차와 같은 불성실성의 문제는 협력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성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조별로 진행한 학습에 대해서 조원들이 참여 조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한승희 2008).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료평가방식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조별과제 수행시 조원끼리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는 실제적인 갈등해결의 도구는 될 수 없으나 조별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수의 공정성 문제와 불성실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변영계, 김광휘 1999).

동료평가를 통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개인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평가 또한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기평가는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자기고양편향(Colvin, Bloac, and Funder 1995),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비관경향성(Heine and Hamamura 2007),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사회적 바람직성(Ganster, Hennesey, and Luthans 1983)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동료평가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두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조별활동의 동기 부여의 측면뿐만 아니라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조별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조원들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특성에 맞는 협력의 방식이 발견된다면 이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으로 문화적인 성향과 성별에 따라 조별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은 '한 사회내에서 개인이 지니는 신념, 태도, 자기정의, 규준과 가치의 패턴'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덧붙여 수평적-수직적인 성향을 추가한 4가지의 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최태진 2006 재인용). 또한 조별활동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헌정보학과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학의 목적 중의 하나는 교육을 통한 인체

양성이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도 창의적인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것인가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교육 도구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엄영애 200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과정에 치중되어 있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 도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협력학습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동료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Driver 1995). 협력학습의 하나로 한승희(2008)는 프로젝트 중심학습법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은 제시된 두 가지 능력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2.0 도구들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협력 학습과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정영숙, 박옥남 2009; 박성재 2013a, 2013b). 특히, 박성재(2013b)의 연구에서는 위키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위키를 통해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습능력에 있어서 향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도구 이외에도

조원들 간의 친밀성이나 조원 평가들의 도구가 조별 활동의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력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협력학습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재 2013a). 무임승차자의 문제나 불균등한 업무배분, 불성실한 준비, 점수산출방식의 문제 등은 협력학습보다는 개별 학습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한다. 결국, 협력학습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협력하는 동료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동료 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를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협력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등 1991). 그러나 아직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동료평가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프로젝트 중심 학습 효과를 측정 한 승희(2008)의 연구에서 동료평가를 실시했음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 있지 않다.

2.2 학생의 인지타입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적 차이와 인간 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Hofstede(1980)의 문화이론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아적인 특성으로 집단주의를 분석하고 서구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all(1976)은 맥락(context)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서구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각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지역과 문화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발달이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아시아 국가(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신호 1999; 한규석, 신수진 1999; Cho et al. 2010; Park and Kim 2006).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분석의 단순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Triandis(1988)는 수평적/수직적 성향을 포함하여 개인의 문화성향을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Singelis 등(1995)은 4개의 범주(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4개의 범주 중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인 수평적인 특징과 자율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우월성을 과시한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수직적 위계질서보다는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에 반해, 수직적 집단주의자는 확고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향을 보인다(한규석, 신수진 1999).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국내 연구로 박현경과 이영희(2004)는 집단 상담상황에서 각 문화성향을 지닌 참여자

들의 역할기대와 치료를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규석과 신수진(1999)은 한국인들의 선호가치에 대한 설문에 적용하여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파악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Hofstede가 말하듯,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규석, 신수진의 연구(1999)에서는 연구 참여자 848명중 46%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김지현(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성향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했고 그 결과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에 의한 차이는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협력학습의 경우에는 협력하는 조원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이해는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교육의 영역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 설문했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문제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협력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1) 학생들은 어떠한 문화적 성향을 보이는가?
- 2) 개인적 특성(문화적 성향이나 성별)에 따른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3)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적 접근법이 요구되는가?

학생들의 문화적 성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성향이 주를 이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즉, 개인주의 성향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분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적인 성향에 대해 연구를 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결과에서 이러한 문화적 성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차이 또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설문지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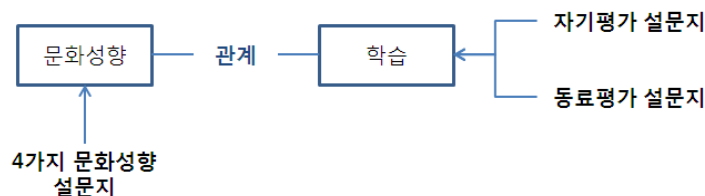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문화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고 학습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비교함으로써 연구문제인 문화적인 성향과 협력학습의 관계를 밝혔다.

3.2.1 연구 도구

학생들의 인지타입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Singelis 등(1995)의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대한 수정 없이 4가지 문화적 성향(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에 따라 각각 8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성향을 측정하였다.

자기 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14개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개인의 활동에 대한 리커드 척도를 이용한 평가는 물론 자유롭게 기술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활동에 대한 평가로 주제 흥미도, 협력의 정도, 정보의 중요도 평가, 정보조직능력, 발표능력, 글쓰기능력, 시간엄수, 시간관리능력, 강점의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창조성, 삶의 재조명, 참여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배운점, 잘한 점, 어려웠던 점, 개선된 점,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동료 평가의 항



〈그림 1〉 연구의 방법

목으로 회의참여도, 토론기여도, 시간엄수, 회의 준비도, 협력정도, 기여도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별 프로젝트에서 조원들의 협력정도와 만족도 및 기여도를 분석했다. 설문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설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수업에서 활용하는 위키사이트에 설문참여를 위한 링크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조별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난 후 한 달 동안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3.2.2 연구 참여자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두 개의 수업에 수강하는 45명의 학생 중에서 3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두 개의 수업내용은 동일하며 진행방식 또한 동일했다. 연구 대상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국내 도서관 중 한 곳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SWOT분석을 바탕으로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각 조는 학생들의 선호에 의해 관중이 선택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4-6명으로 한 조를 구성하였다. 7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수업에서 제공하는 위키를 활용하여 조별활동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이다. 3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연구 결과

4.1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문화적인 성향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문화성향에 대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해 모두 “보통이다”를 선택하여 답한 학생의 설문을 제외하고 36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2.2%의 학생들이 집단주의 성향을 보였고 27.8% 학생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에게서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집단주의 성향이 2학년과 4학년에 나타나고 있었다. 3학년의 경우 1명의 참여자로 그 결과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표 1> 참조).

<표 1> 연구 참여자 현황

범주		유형		총계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별	남자	6 (42.9%)	8 (57.1%)	14
	여자	4 (18.2%)	18 (81.8%)	22
학년별	2학년	7 (30.4%)	16 (69.9%)	23
	3학년	0	1 (100%)	1
	4학년	3 (25.0%)	9 (75.0%)	12
총계		10 (27.8%)	26 (72.2%)	36

〈표 2〉 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세부기준)

유형	응답자 수	비율	누적비율
수평적 집단주의	24	66.7	66.7
수평적 개인주의 I	7	19.4	86.1
수직적 개인주의	3	8.3	94.4
수직적 집단주의	2	5.6	100.0
총계	36	100.0	

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직적·수평적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86.1%인 31명의 학생이 수평적인 성향을 보였다. 수직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5건(13.9%)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평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네 가지의 속성에 따라 분석했을 때, 66.7%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평적 개인주의(19.4%), 수직적 개인주의(8.3%), 수직적 집단주의(5.6%)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4.2 학생들의 조별활동 내용에 대한 동료평가

4.2.1 문화성향에 따른 동료평가

학생들의 문화적인 성향에 따라 조별활동에 대한 동료평가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별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회의참여도', '토론기여도', '시간엄수', '회의준비도', '협력정도', '기여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항목을 종합했을 때,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동료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협력학습을

진행할 때, 시간엄수, 회의준비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성향의 학생들은 협력학습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에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이나 실제적인 기여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력의 정도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조원들과 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학생들이 협력의 정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협력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감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상황과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들이 협력학습과는 맞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작기 때문에 4가지 범주로 세분화된 문화성향 분석을 진행했을 때 작은 수의 학생들이 각각의 범주로 묶였다. 따라서 4개의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으로 차원을 줄여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모든 평가항목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동료평가 점수를 획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토론의 기여도 측면에

〈표 3〉 학생의 문화성향별 동료평가 결과 비교

기준	문화적 성향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회의참여도	수평적 개인주의	7	3.80	0.96	0.36
	수직적 개인주의	3	3.78	0.69	0.40
	개인주의	10	3.79	0.85	0.27
	수평적 집단주의	24	3.95	0.90	0.18
	수직적 집단주의	2	3.88	0.88	0.63
	집단주의	26	3.94	0.88	0.17
토론기여도	수평적 개인주의	7	3.46	1.05	0.40
	수직적 개인주의	3	3.67	0.88	0.51
	개인주의	10	3.53	0.95	0.30
	수평적 집단주의	24	4.11	0.74	0.15
	수직적 집단주의	2	3.63	0.18	0.13
	집단주의	26	4.07	0.72	0.14
시간엄수	수평적 개인주의	7	3.59	0.96	0.36
	수직적 개인주의	3	4.33	0.58	0.33
	개인주의	10	3.81	0.90	0.29
	수평적 집단주의	24	4.03	0.90	0.18
	수직적 집단주의	2	3.63	0.18	0.13
	집단주의	26	3.99	0.87	0.17
회의준비도	수평적 개인주의	7	3.69	1.08	0.41
	수직적 개인주의	3	4.11	0.96	0.56
	개인주의	10	3.81	1.01	0.32
	수평적 집단주의	24	4.10	0.79	0.16
	수직적 집단주의	2	3.63	0.18	0.13
	집단주의	26	4.07	0.77	0.15
협력정도	수평적 개인주의	7	3.80	0.82	0.31
	수직적 개인주의	3	3.67	0.58	0.33
	개인주의	10	3.76	0.73	0.23
	수평적 집단주의	24	4.09	0.86	0.18
	수직적 집단주의	2	4.13	0.18	0.13
	집단주의	26	4.09	0.82	0.16
기여도	수평적 개인주의	7	3.57	1.02	0.39
	수직적 개인주의	3	3.78	0.96	0.56
	개인주의	10	3.63	0.95	0.30
	수평적 집단주의	24	4.13	0.86	0.18
	수직적 집단주의	2	3.75	0.00	0.00
	집단주의	26	4.10	0.83	0.16
총계	수평적 개인주의	7	21.91	5.43	2.05
	수직적 개인주의	3	23.33	4.36	2.52
	수평적 집단주의	24	24.41	4.59	0.94
	수직적 집단주의	2	22.63	0.88	0.63
	소계	36	23.73	4.59	0.77

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0.5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각 항목별 두 집단의 평균차가 의미있는 지에 대한 t-검정 결과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2.2 성별에 따른 차이

문화성향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협력학습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표 4>는 동료평가의 각 문항별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6개 항목 모두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측정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95% 신뢰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협력의 정도’와 ‘기여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조별활동을 위해 더 협력하고 그 실제 기여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4.3 협력정도에 대한 분석

4.3.1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비교

조별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협력의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결과는 <표 6>

<표 4> 성별 동료평가 결과 비교

평가항목	성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회의참여도	남자	18	3.7833	.95642	.22543
	여자	25	3.8307	.90713	.18143
토론기여도	남자	18	3.5806	.84390	.19891
	여자	25	4.0360	.72866	.14573
시간업수	남자	18	3.5907	1.01599	.23947
	여자	25	4.0687	.74066	.14813
회의준비도	남자	18	3.5685	1.00245	.23628
	여자	25	4.0907	.73236	.14647
협력정도	남자	18	3.5500	.94837	.22353
	여자	25	4.1647	.62658	.12532
기여도	남자	18	3.5500	1.05443	.24853
	여자	25	4.1627	.65301	.13060

<표 5> 성별 동료평가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평가항목	t	자유도	유의도(양측검정)	평균차	표준오차
회의참여도	-0.165	41	.870	-.04733	.28683
토론기여도	-1.893	41	.065	-.45544	.24065
시간업수	-1.786	41	.081	-.47793	.26755
회의준비도	-1.976	41	.055	-.52215	.26423
협력정도	-2.561	41	.014	-.61467	.23999
기여도	-2.182	26,266	.038	-.61267	.28076

〈표 6〉 응답자의 특성별 협업정도에 대한 결과

	특성	응답자 수	평균차(동료평가-자기평가)	표준편차	표준오차
개인적 성향	개인주의	9	.2333	1.02031	.34010
	집단주의	22	.1689	1.08615	.23157
문화성향	수평적 개인주의	6	.6833	.73258	.29907
	수직적 개인주의	3	-.6667	1.00000	.57735
	수평적 집단주의	22	.1689	1.08615	.23157
	수직적 집단주의	0	-	-	-
성별	남자	15	-.2733	1.23484	.31883
	여자	21	.3865	.83231	.18162

과 같다. 협력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는 3.89로 동료평가 결과인 3.91보다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별로 분석했을 때,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 모두에서 동료평가 점수가 자기평가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동료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분화된 문화성향에 따른 분석결과,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학생들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협업에 대해서 동료들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평가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자기평가를 진행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성별로 분석을 했을 때, 남학생들의 경우 동료들이 생각하는 협업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의 협업에 대한 평가를 더 높게 주는 성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는 협력의 정도에 대해 동료들의 평가가 자기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특성별 평균 차에 대한 t검정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문화성향에 따른 협업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기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집단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다음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협업의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특성	응답자 수	협업정도	표준편차	표준오차
문화성향	수평적 개인주의	6	3.17	.983	.401
	수직적 개인주의	3	4.33	1.155	.667
	수평적 집단주의	22	4.00	.756	.161
	수직적 집단주의	0	-	-	-
	총계	31	3.87	.885	.159

〈표 8〉 성향에 따른 동료의 협력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개인 -> 개인	8	3.62	1.06066	.37500
개인 -> 집단	26	3.96	.87090	.17080
집단 -> 개인	23	3.43	.94514	.19707
집단 -> 집단	50	4.36	.77618	.10977
총계	107	4.01	.92650	.08957

〈표 9〉 협력정도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도	95% 신뢰구간	
					최소수준	최대수준
개인->개인	개인 -> 집단	-.33654	.34731	.816	-1.3237	.6506
	집단 -> 개인	.19022	.35260	.962	-.8120	1.1924
	집단 -> 집단	-.73500	.32711	.175	-1.6647	.1947
개인->집단	개인 -> 개인	.33654	.34731	.816	-.6506	1.3237
	집단 -> 개인	.52676	.24590	.211	-.1722	1.2257
	집단 -> 집단	-.39846	.20771	.304	-.9888	.1919
집단->개인	개인 -> 개인	-.19022	.35260	.962	-1.1924	.8120
	개인 -> 집단	-.52676	.24590	.211	-1.2257	.1722
	집단 -> 집단	-.92522	.21643	.001	-1.5404	-.3101
집단->집단	개인 -> 개인	.73500	.32711	.175	-.1947	1.6647
	개인 -> 집단	.39846	.20771	.304	-.1919	.9888
	집단 -> 개인	.92522	.21643	.001	.3101	1.5404

4.3.2 개인의 성향에 따른 동료평가 비교

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협업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장 높은 평가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의 협력정도를 평가(평균 4.36)한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 평가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두 개의 집단에서의 집단 간 평가의 경우 수 각각에 대해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그 결과 95% 신

뢰수준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떠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 결과 ‘집단-> 개인’과 ‘집단-> 집단’ 평가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 논의

5.1 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앞서 제시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참여한 학

생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동양 문화에서 발견되는 집단주의 성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수평적-수직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66.7%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수직적 집단주의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평적인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40.6%)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한규석, 신수진 1999)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기는 하지만 2004년 최태진의 연구에서는 54.92%가 수평적 집단주의를 나타냈고 2006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0.4%가 수평적 집단주의를 보이고 있다. 최근 김지현(2013)의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수평적 집단주의(전체의 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직적 집단주의(전체의 27%)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학생들에게 개인주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체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별활동에 대한 기여도와 만족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학생들의 기여도나 만족도가 다른 성향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평가 설문문의 한 항목으로 협력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을 했고 문화성향별 만족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의 학생들이었다. 앞서 <표 3>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실제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동료들로부터 높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이들은 협력학습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학생들의 경우,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것과 같이 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협력학습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단순히 구성원의 업무 분담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 개인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는 점에서 협력학습은 내면화된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봉 등 2007).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식의 공유와 창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소규모 조별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선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표 10> 문화성향별 협력학습 만족도

기준	문화적 성향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만족도	수평적 개인주의	6	3.17	1.169	.477
	수직적 개인주의	3	4.33	1.155	.667
	수평적 집단주의	22	4.00	.873	.186
	수직적 집단주의	0	.	.	.
	소계	31	3.87	.991	.178

한 협력학습에서 업무분담적 학습(cooperative learning)이 아닌 협업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1) 잘 정의된 학습목표 설정, (2) 학습자들을 위한 규칙과 역할, (3) 조원의 수, 구성방식, 협력활동 도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4) 기타 교육적 환경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Dillenbourg 1999). 특히, 교수자는 조별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면서 협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5.2 성별의 차이에 따른 프로젝트 기여도 분석

성별에 따라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여학생의 기여도가 남학생의 기여도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별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협력을 통한 학습에 대한 남학생들의 초기 기대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전체적인 기여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협력학습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들이 조별활동 이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별 활동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모두에게 조별활동의 목적과 서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이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후속 연구로 학생들의 협력수업의 결과에 대한 기대수준과 경험한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갭 분석(Gap Analysis)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녀의 성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다른 논의사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혼합해서 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여도와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조원 간의 갈등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는데 까지 이른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 구성에서 남학생만,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Ella et al. 2007), 여학생의 경우 집단 내의 갈등의 양상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연구들은 여자의 의사소통능력이 갈등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Herring 1994; Richardson and French 2000)들이 있지만 성별에 의한 조 구성보다는 혼합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 성별에 따른 협력학습 만족도 결과

평가항목		응답자수	평균	평균차	표준편차	표준오차
성별	남자	15	3.93	0.22	1.163	0.300
	여자	21	3.71		0.784	0.171

6.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문화적인 성향과 협력학습의 관계를 분석하여 협력학습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문화성향 측정설문과 자기평가, 동료평가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향과 협력학습에서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연구결과로 문화성향별 협력학습의 태도와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업의 목표에 대한 공동설정과 공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방향적인 교수와 학습의 관계는 수업의 참여는 물론 협력이 전제된 과제에서도 동기부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과제의 차원을 넘어서 전체 수업과정에서의 학생의 참여와 협력의 가치가 반영된 수업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험적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된 상황의 특수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수가 36명으로 작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차이를 보였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영봉 등. 2007. 『교육심리학』. 고양: 서현사.

김지현. 2013. 한국대학생들의 상품정보인식에 대한 문화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30(2): 61-81.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신규교과목 개설추이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9-53.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2. 대학생들이 말하는 조별과제의 득과 실 [online]. [cited 2014.12.16]. <<http://20slab.naeilshot.co.kr/report/report-view.php?bid=0&idx=153&num=11>>.

박성재. 2013a.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위키를 활용한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93-108.

박성재. 2013b. 협력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효과적인 협력 학습을 위한 위키의 활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99-417.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71-596.
- 변영계, 김광휘. 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엄영애. 2003.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33-49.
- 정영숙, 박옥남. 2009. 위키 환경을 활용한 학습자의 협력학습 기반 그룹 프로젝트 활동 분석: 구글 사이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6(3): 239-259.
- 최태진. 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17-152.
- 최태진. 2006.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교유간 갈등해결 전략. 『한국청소년연구』, 17(1): 5-31.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승희. 2008.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프로젝트 학습법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81-101.
- Cho, Y., B. Mallinckrodt, and S. Yune. 2010.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s Bicultural Values: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djustment to College." *Asian Journal of Counseling*, 17(1&2): 81-104.
- Colvin, C. R., J. Block, and D. C. Funder.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52-1162.
- Dillenbourg, P. 1999. "What do You Mean by Collaborative Learning?" In *Collaborative-learning: Cognitive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pp.1-19). Oxford, England: Elsevier.
- Driver, R. 1995.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Science Teaching." In Steffe, L. P. and J. Gale, eds. *Constructivism in Education* (pp. 385-400). Hillsdale, NJ: Erlbaum.
- Ella, M. M. et al. "Gender Differences in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Groups Promoting Affectiv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Psicologia Escolar e Educacional*, 11. SPE(2007): 27-36.
- Ganster, D. C., H. W. Hennessey, and F. Luthans. 1983.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Effects: Three Alternative Mode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21-331.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NY: Anchor Press/Doubleday.
- Heine, S. J. and T. Hamamura.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 Herring, S. C. 1994.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 [online]. [cited 2014.4.29].
 <<http://urd.let.rug.nl/~welling/cc/gender-differences-communication.pdf>>.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Park, Y. and U. Kim. 2006.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In Kim, U., K. Yang, and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pp. 421-443). New York, NY: Spring Science + Business Media.
- Richardson, H. and S. French. 2000. "Education On-line: What's in it for Women?" In Balka, E. & R. Smith, eds. *Women, Work and Computerization: Charting a Course to the Future*. Vancouver, BC: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ingelis, T. M., H. C. Triandis, D. P. Bhawuk, and M. J. Gelfand.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In Verma, G. and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London, England: Macmillan.
- Williams, D. L., J. D. Beard, and J. Rymer. 1991. "Team Projects: Achieving Their Full Potential."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13(2): 45-5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Y. and K. Kim. 1999. *Theory and Practice of Collaborative Learning*. Seoul: Hakjisa.
- Choi, T. 2004. "Adjustment to School and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Horizontal · Vertical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Its Influence."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15(2): 117-152.
- Choi, T. 2006. "A Particular Strategy for Conflict Resolution of Peer Adolescents According to Cultural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17(1): 5-31.
- Han, K. and S. Sin. 1999. "A Cultural Profile of Korean Society: From Vertical Collectivism to Horizontal Individualism."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 293-310.
- Han, S. 2008. "The Effect of the Project-Based Learning on LIS Education: Focused on Students'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81-101.

- Jung, Y. and O. Park. 2009. "Analyzing Learners' Activities in the Collaborative Learning based Group Project using the Wiki Environment: A Case of the Google Sites 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239-259.
- Kim, J. 2013. "The Effect of Cultural and Demographic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Product Inform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61-81.
- Kim, Y. 2007. *Educational Psychology*. Goyang: Seohyunsa.
- Noh, D.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 Noh, Y, I. Ahn, and S. Choi. 2012. "A Study on new Courses Offered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29-53.
- Park, H., and Y. Lee.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ism- Collectivism, Client's Expectations of the Counselor's Role, and Therapeutic Factors with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4): 571-596.
- Park, S. 2013a. "Wiki Usage of LIS Undergraduates for Collaborative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93-108.
- Park, S. 2013b. "Attitudes of Students Towards Group Projects and Use of Wiki for Effective Collaborative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399-417.
- Um, Y. 2003. "A Study on the Core Courses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33-49.
- UnivTom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2012. Pros and Cons of Group Assignments Reported by Undergraduates [online]. [cited 2014.12.16].
<<http://20slab.naeilshot.co.kr/report/report-view.php?bid=0&idx=153&num=11>>.